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2위 탈환이냐 4위 추락이냐

KIA '운명의 일주일'

롯데·SK와 6연전 … 이용규·나지완 타력에 기대

KIA 타이거즈가 2위를 목표로 '죽음의 6연전'에 나선다.

에이스 윤석민을 앞세워 간신히 연패의 늪에서 탈출한 3위 KIA가 이번주 롯데(4위) 그리고 SK(2위)와 힘겨운 6연전을 준비하고 있다.

KIA는 지난주 안방에서 만난 롯데에게 내리 3경기를 내주는 등 6연패를 기록하면서 순위 싸움에 빨간불이 켜졌다. 롯데는 3경기 차까지 바짝 쫓아왔고, SK는 승차에는 뒤지지만 승률에서 앞서며 KIA를 따돌리고 2위를 지키고 있다.

후반기 1위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1승5패로 참패를 당하며 선두싸움에서 밀려난 만큼 KIA는 2위를 목표로 이번 주 일정을 치러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번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4위까지 추락할 수 있다.

KIA는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11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주 일정이 끝나고 나면 16경기 밖에 남지 않는다. 전력을 재정비해 상위권 판도를 뒤집기에는 남은 경기가 적다. 그만큼 사직에서의 경기는 KIA에게 설욕전이자 2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광주전에 출격해 1승씩을 가져간 롯데의 '준트리오' 송승준-고원준-장원준이 나란히 대기 하면서 마운드 공략이 관건이다.

지난주 '준트리오'는 KIA전에서 1.71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송승준이 7이닝 무실점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호랑이 킬러' 고원준

나지완

도 올 시즌 KIA전 첫 실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시즌 6승에 성공했다. 이중 3승을 KIA에게서 가져갔다. 장원준도 7과3분의2이닝 1실점의 호투로 팀의 싹쓸이 3연승을 완성했었다.

롯데 공략을 위해서 KIA는 이용규·나지완 '85듀오'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85년생 두 타자는 21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3타점을 합작하며 팀 연패 탈출의 중심에 섰다.

화력 재점화에 성공한 톱타자 이용규가 타선 전면에 나선다. 타격 슬럼프에 빠졌던 이용규는 넥센과의 경기를 통해 톱타자의 부활을 알렸다. 21일 경기에선 오랜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천금같은 결승 투런포까지 쏘아올렸다.

지난주 롯데와의 3연전에서 12타수2안타로 1할대 타율을 기록했던 이용규는 한층 매서워진 스윙으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나지완은 앞선 롯데와의 3연전 때 고원준을 상대로 투런포를 기록하는 등 4개를 안타를 기록하면서 분전했었다. 최희섭의 복귀로 4번 타자의 부담감에서 벗어난 나지완은 21일에는 3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방망이를 재조준했다.

한편 21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생애 첫 만루포를 장식했던 김주형은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22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22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101	60	39	2	0.606	0	2패
2	SK	96	53	43	0	0.552	5.5	1패
3	KIA	111	61	50	0	0.550	5.0	1승
4	롯데	102	52	47	3	0.525	8.0	1승
5	LG	98	48	50	0	0.490	11.5	2승
6	두산	95	41	52	2	0.441	16.0	1패
7	한화	100	43	56	1	0.434	17.0	1승
8	넥센	95	37	58	0	0.389	21.0	1패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41〉 2001 시즌 두산 V3

승률 0.508…3위팀 기적의 KS 우승

21세기의 서막이자 세 번째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2001시즌 두산 베어스는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열세를 반전시키며 극적인 우승을 차지해 화려하게 새로운 세기를 열었다.

2년간의 양대리그제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단일리그제로 환원된 첫 해인 2001시즌 두산은 한국프로야구 사상 페넌트레이스 최저 승률(0.508, 3위)로 우승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두산은 1위 삼성(승률 0.609)에 무려 13.5게임, 2위 현대(승률 0.558)에게도 7.0게임차의 승차로 뒤진 상태에서 한국시리즈를 통해 기적의 우승을 연출해낸 것이다.

2001시즌 두산의 극적인 드라마의 연출자는 '덕장' 김인식감독이었고 투타의 주연은 진필중과 윌리엄 타이론 우즈였다. 특급 마무리 진필중은 방어율 3.22 9승 23세이브, 우즈는 타율 0.291 34홈런 113타점의 성적으로 투타의 핵이 되어 팀 우승을 견인하였다.

준플레이이프전은 페넌트레이스 3위 두산과 4위 한화 간의 대결로 펼쳐졌는데 두산이 6-4, 14-5로 2전 전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

플레이오프전은 두산과 페넌트레이스 2위인 현대 간의 대결로 펼쳐졌고 두산이 1-5, 5-3, 8-5, 6-1로 3승1패의 성적을 거두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2001시즌의 한국시리즈에서는 플레이오프전 승자인 두산과 페넌트레이스 1위인 삼성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1차전에사 두산은 배영수의 구원역투와 이승엽의 홈런과 김종훈의 맹타를 내세운 삼성에 4-7로 재역전패 당했다. 2차전서는 두산이 장원진과 김동주의 각 3안타3타점 활약으로 9-5로 승리했다. 3차전에서도 두산이 우즈의 홈런과 홍성흔의 맹타로 6회에 7득점하는 집중력을 발휘해 11-9로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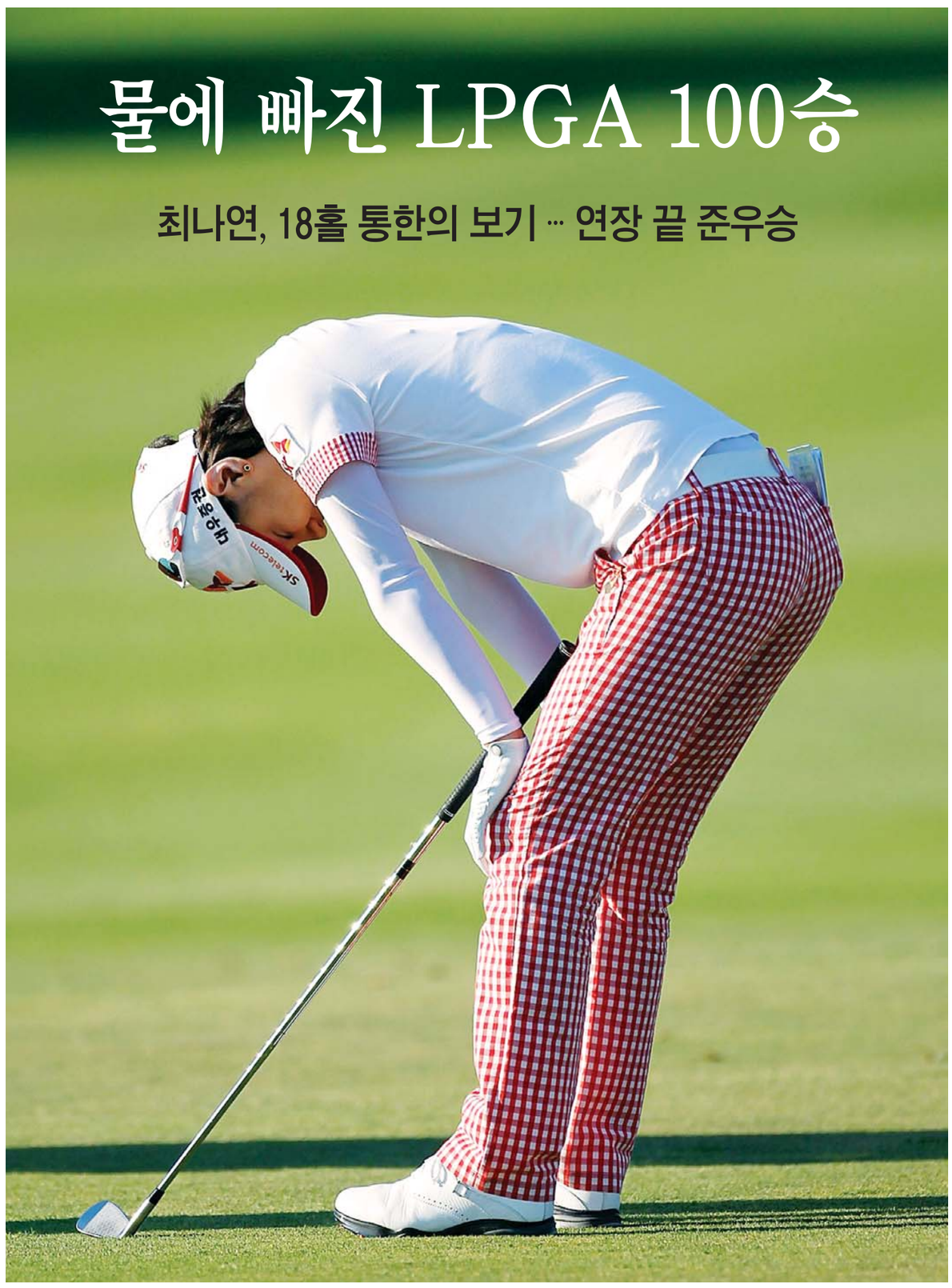
4차전서는 무수한 한국시리즈 타격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2회초 8실점으로 패색이 짙던 두산이 3회말에 12득점하는 저력을 보이며 18-11의 난타전을 재역전승으로 장식했다. 5차전서는 두산이 선발 역투한 삼성 임창용에 눌려 타선이 침묵한데다 16안타를 얻어맞고 4-14로 대패했다.

그리고 포화가 난무했던 6차전서는 진필중 대 임창용의 마무리대결 끝에 두산이 6-5로 신승을 거두며 해태에 이어 두 번째 V3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용병 타자로 꼽히는 우즈는 타율 0.391 4홈런 8타점으로 한국시리즈 MVP에 선정되었다.

김 재 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물에 빠진 LPGA 100승

최나연, 18홀 통한의 보기 … 연장 끝 준우승


최나연이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수잔 페테르센과의 연장전 첫 번째 18홀 대결에서 두 번째 샷을 물에 빠트린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이프웨이 클래식, 9타 차 페테르센에 잡혀

최나연(24·SK텔레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한국선수 통산 100번째 우승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최나연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노스 플레인스의 펌프킨 리지 골프장 고스트 크리크 코스(파71·6552야드)에서 열린 세이프웨이 클래식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타차 단독 선두로 출발했지만 2타를 잃고 합계 6언더파 207타를 적어내 동타를 이룬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연장전에 들어갔다.

최나연은 18번홀(파4)에서 열린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두 번째 샷을 물에 빠뜨리고 보기 퍼트도 넣지 못해 파를 기록한 페테르센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한국 선수들은 지난달 US여자오픈에서 유소연(21·한화)의 우승으로 LPGA 투어 통산 99승을 수확했지만, 또 아홉 수를 넘는데 실패했다.

3라운드 17번 홀까지만 해도 최나연의 우승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어서 더욱 아쉬운 승부였다.

최나연은 1~2m짜리 퍼트를 잇달아 넣지 못하는 등 14번홀까지 보기 4개, 버디 1개를 적어내며 크게 흔들렸다. 이사이 최나연에 9타 뒤진 공동 16위에서 출발한 페테르센은 이글 1개, 버디 5개를 쓸어 담아 무려 7타를 줄이는 불꽃타를 휘두르고 먼저 경기를 끝냈다.

최나연은 15번홀(파5)과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다시 1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지만 431야드짜리 파4인 18번홀에서 발목이 잡혔다.

우승을 눈앞에 뒀던 최나연은 18번홀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왼쪽 러프로 보낸 뒤 어프로치샷마저 짧아 보기를 기록해 페테르센에 동타를 허용했다.

서든데스 방식으로 열린 연장 첫 번째 홀도 18번홀에서 진행됐다. 최나연은 티샷이 왼쪽 러프를 맞고 다시 페어웨이로 들어오는 행운을 잡았지만 두 번째 샷이 오른쪽 연못에 빠지는 미스샷을 날렸다.

1벌타를 받고 물에 빠진 지점 후방에서 네 번째 샷을 날린 최나연은 홀 뒤 4m 지점에서 친 보기 퍼트도 홀을 외면했다.

세 번째 샷으로 홀 1.5m 지점에 볼을 붙인 페테르센은 파퍼트를 집어넣으며 우승을 확정했다.

박희영(24·하나금융그룹)도 마지막 날 선전을 펼쳤지만 1타가 모자란 5언더파 208타를 적어내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3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